

## 情動 Stressor (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柳 熙 英\* · 李 相 龍\*\*

### I. 緒 論

東洋醫學에서 Stressor (Stress 作因, 病因)는 張<sup>27)</sup>의 金匱要略에 “千般疾難 不越三條 一者 經絡受邪 入臟腑 爲內所因也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三者 房室·金刃·虫·獸·所傷 以此詳之 病由 都盡”이라고 三因을 言及하고 陳<sup>28)</sup>이 三因論을 主唱하였다. 病의 發生에 대하여 「夫百病之始生也 皆生於風雨寒暑清濕喜怒 喜怒不節則 傷臟」<sup>25)</sup>이라고 설명하여 대개 병의 원인으로서 生體刺戟의 外的要素인 六氣와 生體內的 要素인 情動이 모두 五臟과 連係되어 生理的 및 病理的인 變化를 일으킨다고 관찰하였다.

七情이란 喜·怒·憂·思·悲·恐·驚의 情志變化를 말한다.<sup>7,8)</sup> 이러한 變化는 精神活動의 構體的 表現이며 다른 事物, 다른 環境의 影響에 의해 사람의 情志를 시시각각 活動 變化시키는 것이지만, 正常的 상황하에서는 그 變化에 절도가 있으므로 健康에는 無害하다.<sup>8)</sup> 만약 喜怒哀思가 지나치면 精神上에 過度한 刺戟을 받아 그것이

정상적인 生理變化에 影響해서 疾病이 發生한다.<sup>2)</sup> 이에 관하여 <素問·陰陽應象大論><sup>25)</sup>의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은 精神과 五臟活動과의 關係를, “喜傷心 怒傷肝……”이라하여 七情의 偏勝이 人體의 內臟에 대하여 不利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東洋醫學은 西洋醫學처럼 精神과 신체를 分離하지 않고 그 성립부터 心身一如의 概念을 包含하여 전체의학의 原理를 見知해 왔다.<sup>16)</sup>

最近 Stress學說과 東洋醫學의 觀點과 의 연계성에 관한 文<sup>11, 16, 15)</sup> 등의 보고와 Stress病에 有効한 藥物들의 抗Stress 효과를 客觀的으로 입증하려는 一連의 實驗 報告<sup>10, 12, 13, 14, 15, 17, 20)</sup> 가 있었다.

그러나 韓方神經精神科 領域에서 重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情動Stressor 즉 七情에 대한 構體的 報文이 不足하다는 認識下에서 五臟의 機能에 七情이 미치는 影響을 중심으로 研究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

## II. 調査資料 및 研究方法

### 1. 調査資料

1. 東醫學의 文獻을 中心으로 하였다.
2. 黃帝內經을 中心으로 原理的 側面을 살폈다.
3. 黃帝內經을 비롯한 13種의 單行本과 20種의 研究論文을 選定하여 研究資料로 삼았다.
4. 西醫學의 文獻調査는 <<Stress Reseach>>를 中心으로 한 3種의 단행본과 3種의 研究論文을 選定하여 研究資料로 삼았다.

### 2. 研究方法

1. 먼저 Stress學說과 心身關係에 대하여 東·西 醫學的 考察을 하였다.
2. 七情이 五臟機能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3. 五臟의 生理·病理的 變化를 일으키는 七情要素를 各臟器를 中心으로 살펴 보았다.
4. 1, 2, 3項의 內容을 連關지어 總括 및 考察項에서 살펴 보았다.

## III. 本 論

### 1. Stress와 心身關係

東洋醫學은 精神을 五志로 나누어 人體의 基本臟器인 五臟과 결부시켜 精神은 肉體에 깃들여 있고 영민한 神의 作用도 五臟의 원활한 活動과 상호 협조로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작용의 구체적인 表現으

로서 감정의 傾偏이나 過極은 五臟의 機能에도 영향을 주어 원만한 생리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하여 心身一如의 생명현상을 說明하고 있다.<sup>8)</sup>

이러한 東洋醫學의 觀點은 Stress學說을 포함하고 있는데 Stress學說은 Claude Bernard의 항상성 (Homeostasis) 理論이래로 W.B Cannon의 생체 조절기구에 관한 고전적 원칙 (Stress에 대한 epinephrine 반응)을 背景으로 나타난 것이다.<sup>33)</sup> Stress학설의 중요한 점은 의학의 통일적 개념, 즉 질병의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 몸 전체에 일어나는 반응을 공평하게 바라본 것으로 종래 특이적 증상에 집중하여 몸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비 특이적 증상에는 소홀했던 약점을 잘 지적해준 것이다.<sup>30)</sup>

Stress는 體外에서 가해진 各種의 有害作用에 應해서 體내에 생긴 傷害와 防衛反應의 總和라고 定義된다.<sup>30)</sup> 그런데 Stress狀態를 생기게 하는 作用因子와 作用因子에 의하여 생긴 Stress狀態를 구별하기 爲해서 Selye는<sup>33)</sup> Stressor (Stress作用)란 말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단지 Stress라고 부르면 Stressor에 의하여 생긴 Stress狀態를 가리키는 것으로 指定했다.<sup>3, 26)</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tress는 適量을 넘어선 過度한 刺戟을 말한다.<sup>3, 16)</sup>

Stress狀態라 함은 Stressor에 의해 生體에서 일어나게 되는 生理的인 反應을 意味함이다.<sup>16)</sup>

Cannon은 고양이에게 개를 보이면 緊急事態에 대한 하나의 適應現象으로서 고양이

이 體內에 adrenaline이 分泌되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緊急反應이라고 이름하였으며<sup>30)</sup> Selye는<sup>33)</sup> Stressor가 加해지면 대뇌피질이 이것을 받아 視床下部를 거쳐 下垂體에 刺戟이 전달된다.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副腎皮質刺戟 호르몬의 작용으로 副腎皮質에서 여러가지 호르몬이 分泌되어 이것이 全身에 作用하여 反應이 일어나 Stress작용의 有害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저지시키려고 한다. 이 反應은 원래 身體가 外界의 變化에 적응하기 위한 症候이므로 汎適應症候群(General Adaptation-Syndrome : G.A.S.)이라고 부르는데 그 第一期는 警告反應의 시기이다. 이것은 Stressor에 돌연히 暴露되어 傷害의 症候가 나타나는 Shock期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위반응을 구축하려고 하는 反Shock期로 나누어 진다. Shock期에서는 體溫이나 血壓, 血糖이 정상이하로 내려가 神經系의 活動이 억제되어 있으나 反Shock期에 들어가면 體溫이나 血壓, 血糖이 높아져서 神經系도 活發해 진다.

第二期는 抵抗期로 저항력이 가장 강화된 안정된 狀態다. 그러나 Stressor가 오래 지속되면 適應反應이 維持하기 어려워 第三期의 疲勞期로 접어든다. 즉 身體의 적응에너지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疲勞가 극단에 이르면 疾病이 發生한다.<sup>8, 16)</sup>

이에 대해 緊急反應의 機序를 보면 먼저 고양이 眼網膜에 비친 상이 大腦皮質에 達하고 개가 있다는 것을 認知하게 된다. 이어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개를 外適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間腦에 있는 自律神經中樞를 흥분시킨다. 이 흥분이 內臟神經을

情動Stressor(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刺戟하고 그 神經지배를 받는 副腎皮質에서 最終적으로 어느 정도의 adrenaline이 分泌되는 것이다. 이 緊急反應에는 特別히 間腦의 自律神經中樞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30)</sup>

결국 Stress에 대한 生體의 反應은 腦下垂體 — 自律神經 — 副腎이라는 Stress mechanism의 作用에 의하여 행해지며 一部는 大腦 변연계(limbic system)의 기능도 관여되고 적응 hormone(catecholamines, endorphins, indolamines, corticosteroids, prolactin, growth hormone, testosterone, lutenizing hormone)에 영향을 준다.<sup>3, 16, 32)</sup>

「東洋醫學에서는 Stressor에 대한 생체 내부기능의 變化를 氣의 變化로 表現하였다. 이러한 氣의 變化는 <素問·舉痛論><sup>25, 26)</sup>에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熱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이라하여 感情이나 外氣의 變化가 하나의 Stressor로 作用하는데 대한 反應으로서 나타나는 現象이 氣의 變化이며 그 症候에 따라 七氣 또는 九氣로 分類한다.<sup>18)</sup> 이는 곧 精神作用 및 外氣의 變化 등이 脈管 및 內臟支配神經인 自律神經의 緊張과 弛緩이라는 現象을 가져옴을 두고 하나의 症候로 본 것이다.<sup>1)</sup>

또한 정신기능의 구체적 현상인 喜, 怒, 憂, 思, 悲, 恐, 驚의 七情도 五臟과 연관시켜 <素問·陰陽應象大論>에 肝在志爲怒, 心在志爲喜, 脾在志爲思, 肺在志爲悲與憂, 腎在志爲恐與驚이라 하였다.<sup>8)</sup>

## 2. 七情이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人間의 감정은 모두 五臟에 근원을 두고 發하는 것이기 때문에 五臟은 七情을 간직한다고 하였다.<sup>9)</sup>

그러나 어떤 감정이 發하는 데는 그 감정을 所藏하는 主된 臟器가 근원이 됨은 물론이지만 餘他的 모든 臟器도 이에 관여하여 상호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見知에서 七情傷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喜

① 心在志爲喜 喜本屬心 而有曰肺喜樂無極則傷魄 是心肺皆主於喜也 蓋喜生於陽而心肺皆爲陽藏 故喜出於心 而移於肺 所謂多陽者 多喜也<張氏類經><sup>26)</sup>

② 喜發於心而成於肺 古過節則 二臟俱傷<皇甫謐><sup>29)</sup>

③ 喜樂者神蕩散而不藏 又曰喜樂無極則傷魄 魄爲肺神也<靈樞·本神篇><sup>24, 25)</sup>

④ 喜則氣緩 脉散而虛 甚則神庭融溢 蓋喜甚則 火盛侮金 腎水復母讐而尅心<醫學入門><sup>23)</sup>

### 2. 怒

① 怒本屬肝 而有曰膽爲怒者 以肝膽爲表裏 肝氣作強 而取決於膽也 有曰血并於上 氣并於下 心煩惋善怒者 以陽爲陰勝 故病及於心也 有曰腎盛怒而不止則傷志 令人無故善怒者 以發於陰而侵乎腎也 是肝胆心腎四臟 皆能病怒 所謂多陰者多怒 亦曰陰出之陽則怒也<張氏類經><sup>26)</sup>

② 大怒則形氣絕 而血菀於上 使人薄厥<素問·生氣通天論><sup>25)</sup>

③ 膽爲怒 胆肝之病實則爲怒<靈樞·邪氣臟腑病形><sup>25, 26)</sup>

④ 七情傷人惟怒爲甚 蓋怒則肝木便克脾

土 脾傷則四臟俱傷<綱目><sup>9)</sup>

⑤ 七情五志火起 大怒火起於肝則手掉目眩<醫學入門>

### 3. 憂

① 憂本屬肺 而有曰心之變動而憂者 有曰心小則易傷以憂者 蓋憂則神傷故傷心也 有曰精氣并於肝則憂者 肝勝而侮脾也 有曰脾憂愁而不解則傷意者 脾主中氣 中氣受抑則 生意不伸 故鬱而爲憂 是心肺肝脾四臟 皆能病於憂也<張氏類經><sup>26)</sup>

② 愁憂不解則傷意 意爲脾神也<靈樞·本神><sup>25)</sup>

### 4. 思

① 思本屬脾 而此曰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 蓋心爲脾之母 母氣不行則病及其子 所以心脾皆病於思也<張氏類經><sup>26)</sup>

② 思發於脾而成於心 過節則二臟俱傷<皇甫謐><sup>29)</sup>

③ 梳揚思慮則傷神<靈樞·本神><sup>25)</sup>

### 5. 悲

① 肝悲哀動中則傷魂 悲傷於肝也 有曰情氣并於肺則悲 有曰悲則肺氣乘矣 亦金氣傷肝也 有曰心虛則悲 有曰神不足則悲 有曰悲哀太甚則包絡絕 包絡絕則陽氣內動 發則心下崩數洩 血者悲傷於心也 此肝肺心 三臟皆病於悲而氣消也<張氏類經><sup>26)</sup>

② 悲哀則泣下……是以俱悲則神氣傳於心<素問·解精微論><sup>24, 25)</sup>

③ 七情五志火起 悲哀火起於肺則氣上賁鬱 悲傷心包及肺系 其氣急 過則爲狂<醫學入門><sup>23)</sup>

### 6. 恐

① 恐本屬腎 而有曰恐懼則傷心者 神傷

則恐也 有曰血不足則恐 有曰肝虛則恐者 肝爲將軍之官 肝氣不足則怯而恐也 是心腎肝脾胃 五臟皆主於恐 而恐則氣下也《張氏類經》<sup>26)</sup>

② 恐懼者神蕩散而不收《靈樞·本神篇》<sup>24)</sup>

### 7. 驚

① 東方色青 入通於肝 其病發驚駭 以肝應東方風木 有曰陽明所謂甚則厥 聞木音則惕然而驚者 肝乘胃者 有曰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者 心神散失也 比肝胆胃心四臟皆病於驚而氣之亂也《張氏類經》<sup>26)</sup>

②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人大驚卒恐 神蕩散而不藏《靈樞·本神篇》<sup>24)</sup>

## 3. 五臟과 關聯된 七情要素

精氣와 臟과 感情과의 關係를 《素問·宣明五氣篇》<sup>25)</sup> 에 「五臟이 각기의 精氣를 內藏하는 힘이 빠지면 그 精氣가 肝에 집중되면 노하기 쉽고(易怒), 心에 집중되면 기뻐하기 쉽고(易喜), 脾에 집중되면 깊은 생각에 잠기기 쉽고(易思), 肺에 집중되면 슬퍼하기 쉽고(易悲), 腎에 집중되면 두려워하기 쉽다(易恐).」하여 精氣가 臟에 均衡하게 分배되어 있는 상태가 건강이고 精氣가 특정 臟器에 偏集되면 감정이 病的으로 되어 나아가서는 病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喜傷心, 怒傷肝,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라 하였다. 이것들은 모든 七情의 偏勝이 人體의 內臟에 대하여 不利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sup>8)</sup>

### 1. 肝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

① 怒; “怒”는 肝之志로서 그 性質이 剛暴하다. 《素問·舉痛論》<sup>25)</sup> 에서는 “怒

情動 Stressor(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 則氣上”이라고 하였는데 氣가 上逆되면 肝臟機能에 影響을 미쳐서 升發·疏泄作用이 太過함에 따라 “怒則氣盛而胸脹, 肝舉而胆橫”할 뿐만 아니라 “血之與氣 并走于上 則爲大厥”하기도 하며 肝의 藏血機能이 影響을 받을 경우에는 위로는 嘔血하고 아래로는 崩漏하게 된다. 또한 氣血이 甚하게 耗損되었을 경우에는 肝이 滋養되지 못하며 잘 怒하게 되고 怒한즉 다시 氣血을 損傷시키기 때문에 이로 因하여 악순환이 이어진다.<sup>27)</sup>

② 恐·憂·驚; 이 三者는 本來 肝志가 아니지만 肝病과는 밀접한 關係가 있다.

“恐”은 氣가 虛怯하여 생기는 것으로서 《素問·舉痛論》에 “恐則氣下”라고 하여 肝의 升發機能이 직접적으로 抑制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肝氣虛則恐 實則怒”라고 표현한다. “憂”는 肝氣가 鬱結된 것으로서 가장먼저 疏泄機能에 影響을 미쳐서 飲食不思·胸脇脹悶等症이 나타난다. “驚”은 心이 虛하여 나타나는데 心包와 肝은 모두가 厥陰經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肝氣가 上逆되고 風火가 動搖를 일으키면 心包에까지 影響을 미쳐서 驚悸 등이 나타난다. 또한 “驚則氣亂”이라고 하였으므로 “驚”이 升發機能에 影響을 미쳐 太過한다고 볼 수 있다.<sup>2, 7, 22)</sup>

### 2. 心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

《靈樞·口問篇》<sup>24)</sup> 에 “悲哀憂愁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라 하여 心의 七情에 대한 主導的인 作用을 強調하고 있다.

① 喜; 《素問·陰陽應象大論》<sup>24, 25)</sup> 에서 “在臟爲心…… 在志爲喜, 傷喜心 恐勝喜”라 한 것처럼 喜는 心의 志로서 정상적인 狀況下에서는 人體에 無害有益하기 때문에 《素問·舉痛論》에서도 “喜則氣和志

達榮衛通利”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는 “喜傷心”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데 喜傷心の 결과로는 <靈樞·本神篇>에서 이야기 한 바와같이 “神憚散而不藏”하기 때문에 <素問·調經論>에서는 이를 가리켜 “喜則氣下”라고 한 것이다.<sup>2)</sup>

② 憂思; 憂思와 勞倦은 心·脾를 손상시키는데 心이 손상되면 陰血이 耗損되어 神不寧息하고 脾가 손상되면 精微를 化生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血이 虛해지면 火를 받들지 못함으로써 心悸·失眠·面色蒼白등과 같은 症狀이 나타나게 된다. 七情이 過度한 경우에는 臟腑의 機能이 失調되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情志의 變化가 일어나게 되니 <靈樞·本神篇>에 “肝氣虛則恐……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등이 그 例라고 할 수 있겠다.<sup>2, 7)</sup>

### 3. 脾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

“憂思傷脾” “怒傷肝” “肝木克脾土”<sup>24)</sup>라고 하여 七情중에서 憂·思·怒가 脾胃致病의 중요한 要素임을 알 수 있다.

① 憂; 沈은 “憂者 肺與脾病也 憂爲肺病 肺與脾同稱太陰 同引氣以給衆臟 肺既成憂病 則閉結不解 氣因於而傷脾 故憂而脾病”이라 하여 肺의 志인 憂가 어떻게 脾를 손상시키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② 思; 思는 脾의 志이므로 脾가 思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으면 生化의 源泉이 不足하게 되어 心脾兩虛證이 나타나게 된다. 內經에서는 “思則氣結”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由”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思慮鬱結로 말미암아 心과 脾가 손상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sup>2, 7)</sup>

③ 怒; 怒는 본래 肝之志이지만 肝과 脾는 木克土의 制約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怒한즉 肝木이 盛해지면 脾土를 克함에 따라 肝氣犯胃證이나 肝脾不和證이 생기게 된다.<sup>7)</sup>

### 4. 肺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

① 悲; “悲”로 말미암아 肺가 손상을 받으면 情志가 鬱結되고 五臟이 調和를 喪失하여 邪火가 肺로 上逆한다.<sup>2, 10)</sup>

② 憂·思; 憂와 思로 말미암아 心脾가 손상을 받으면 이것이 오래되어 氣血이 不足해지고 正氣가 衰弱해 짐에 따라 邪氣의 침입을 잘 받게 되어서 肺가 손상을 입기도 한다.<sup>10)</sup>

### 5. 腎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

七情 중에서는 怒·恐·驚등이 腎病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sup>7)</sup>

① 怒; 怒는 肝之志로서 氣血이 旺盛한 사람이 怒火를 暴發시킬 경우에는 그 勢力이 肝의 母格이 되는 腎을 乘함으로써 (子盜母氣) 腎病을 일으킨다. 이에 관하여 <靈樞·本神篇>에서는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이라고 하였다.<sup>27)</sup>

② 恐; <素問·陰陽應象大論>에 이르기를 “在臟傷腎……在志爲恐 恐傷腎……”이라고 한 것처럼 恐傷腎의 결과 正氣가 內損되기 때문에 <素問·舉痛論>에서는 “恐則精却”이라고 한 것이다.<sup>2)</sup>

또한 精血이 不足해도 무서움을 잘타게 되는 까닭에 “腎氣不足則善怒 血不足則恐”이라는 說이 생겨난 것이다.<sup>7)</sup>

③ 驚; 놀라게 되면 心神이 不安해지고 心氣가 紊亂해져서 陽勝陰虛한 症狀이 나타나고 腎이 風邪를 받은 후에는 水邪가 凌心함으로써 驚症이 發生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여 心氣가 虛해졌을 때에는 心과 腎에 모

두 病이 들게 된다.<sup>2)</sup> 이에 관하여 《素問 學痛論》<sup>25)</sup>에서는 “病生在腎 名爲腎風… …善恐… …心氣痿者死”라고 하였다.

#### IV. 總括 및 考察

人體는 對人關係나 社會環境의 一定한 變化에 따라 精神, 特히 情緒的 Stress를 받게되면 즉각 身體內部的 精神生理的 反應을 惹起하여 各種臟器에는 一定한 機能的 變動이 自律的으로 일어나게 되며<sup>18)</sup>, 이러한 Stress가 持續될 시 기질적 變動까지도 誘發하기도 한다.<sup>35)</sup> 西洋醫學에서 가장 代表的인 Stress病은 胃·十二指腸潰瘍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氣痛, 心痛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sup>16)</sup> 그밖에 喘息, 糖尿, 皮膚疾患 등등 內科를 비롯한 모든 科에서도 問題時 되고 있다.<sup>35)</sup>

物質文明의 發達과 生活環境의 급격한 變化, 늘어가는 人口 속에서 벌어지는 生存競爭, 自己 價値發見의 喪失, 열등의식, 군중속의 고독, 직장에서의 수많은 對人關係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부담감 등이 더욱 더 큰 Stressor로 作用되어 가고 있는 것이 現代社會이다. 그러므로 外部的 Stressor (六淫)와 不內外因보다도 內因(七情)에 의한 Stress病이 훨씬 增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1956年 Hanse Selye의 G.A.S.假說이 發表된 이래 이에 대해서는 生理學的, 生化學的 또는 病理組織學의 方法으로 研究를 하였고<sup>35)</sup>, 人體에 Stress를 加했을 때 Stress의 種類如何를 莫論하고 程度

情動Stressor(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는 있으나 大略 同一한 變化가 全身各臟器內에 出現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變化는 Stress가 加해졌을때 惹起되는 Selye의 汎適應症候群(G.A.S.)으로 取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下田<sup>31)</sup>은 환경과 順應에 대한 括目할 만한 지적으로 情緒的 Stress와 Gastrin 분비동태를 관찰한 임상례를, Glass<sup>34)</sup>는 Stress에 관한 임상례를, Copper<sup>32)</sup>는 Stress 研究에 체계를 세우려하여 精神刺戟의 一部分인 Stress가 內臟機能에 미치는 影響을 연구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精神刺戟에 대한 東醫學의 文獻으로는 素問「疏五過論」과 「血氣形志篇」<sup>24, 25)</sup>에서 언급한 이래 現在에 이르기까지 歷代醫學者들<sup>21, 22, 26, 28)</sup>이 이를 利用하여 說明하고 있다.

以上の 東西醫學的 認識은 Stress가 人間의 精神의 身體的 疾患을 誘發시킨다는 데 그 認識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Stress 자극시 正常的 生理下에서 그 자극을 이길 수 있으면 健康에는 無害하게 되나 인간이 이길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刺戟이 되면 正常的인 生理變化에 影響을 미쳐서 疾病을 초래하게 된다.<sup>12)</sup> 즉 Stress 刺戟時 이에 대한 精神과 肉體의 防禦機際에 異常이 생겼을 시 身體에 疾病이 發生됨을 推論할 수 있겠다.

情動Stressor(七情)란 喜怒哀思悲恐驚이라는 七情의 變化를 말하며<sup>8)</sup> 이러한 七情의 變化는 精神活動의 構體的 表現이며 다른 사물, 다른 環境의 影響에 의해 사람의 情志를 시시각각 活動 變化시키는 것이며, 만약 喜怒哀思가 지나치면 정신상에 과도한

刺戟을 받아 그것이 정상적인 生理變化에 영향해서 疾病이 發生한다.<sup>8), 16)</sup> 이와 같이 精神的인 과로 즉 七情傷은 身體에 五臟의 虛實, 血虛, 精損, 氣虛, 氣의 循環障礙, 痰涎의 조성등의 病的인 要因을 만들어 준다.<sup>1)</sup>

한편 東洋醫學은 內經에서 提示하는 原理的인 觀點에서 볼 때 天人相應의 醫學思想으로 自然과 人間이 宇宙變化의 一定한 法則에서 相互調和를 維持하려는 努力이 人體의 適應 現象임을 強調하고 있다.<sup>5)</sup> 즉 季節의 變化에 의한 氣候變化를 六氣라 하여 生體刺戟의 外的 要素로 보았으며 이에 따른 人體 構成要素인 精·氣·神과 나아가서 五臟을 中心으로 機能的 變化를 現象的으로 觀察하였다. 뿐만 아니라 生命力 發顯으로 表出되는 精神을 生體內的 現象으로 五神이라 하였고, 外來의 刺戟을 통하여 나타나는 生體의 外的 形徵으로 七情이라 區分하였으니 特히 情緒反應으로서의 七情 또한 五臟과 連系되어 生理的 變化는 물론 病理的 原因으로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人體의 內外的 刺戟으로 因한 變化를 肉體와 精神으로 分離하여 觀察한 것이 아니라 生命發顯의 兩面性을 全一生命體라는 觀點에서 一元的으로 統合하여 觀察했다.<sup>18)</sup>

肝에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는 “怒”를 爲主로 하면서 “恐”, “憂”, “驚”등도 肝病을 일으키는 要因이 된다. “恐”, “憂”, “驚”三者는 본래 肝志가 아니지만 肝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를 肝의 生理機能을 中心으로 살펴보면, 肝主疏泄이라는 것은 肝이 疏展시키고 升發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sup>2), 7), 21)</sup>

肝氣의 疏泄은 주로 人體 氣機의 升降 및 調節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는데 이는 氣機가 人體 臟腑機能活動의 基本形成이 되기 때문이다.<sup>2)</sup> 外界의 刺戟으로 말미암아 大怒하거나 過度하게 抑鬱되거나 하면 肝疏泄機能이 失調되어 肝氣鬱結, 氣機不調등의 病理現象이 나타나며 정신活動的인 面에 異常한 變化가 發生하는데 이러한 變化들은 抑鬱과 興奮이라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 그리하여 肝氣가 抑鬱된 즉 胸脇이 脹滿해지고 늘 憂鬱하여 즐거움이 없으며, 의심이 많고 걱정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하면 沈鬱하여 울려고 하며 月經이 不順해지기 까지 한다.<sup>7)</sup> 病理上에 있어서 肝의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脾胃의 소화·흡수와 膽汁의 분비 배설이 그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消化不良의 病變이 발생하게 된다.<sup>21), 22)</sup> 이와 같이 肝氣가 上逆하거나 “恐則氣下”하거나 “憂則氣結”, “驚則氣亂”하게 되면 肝臟機能에 영향을 미쳐서 升發·疏泄作用이 太過함에 따라 「肝氣鬱結」, 「肝鬱化火」, 「肝氣犯胃」, 「肝脾不和」등의 病理的 상태가 초래됨은 認識할 수 있다.

心은 人間의 生命活動의 中心이며 情志와 思惟活動의 中樞이다.<sup>21)</sup> 《素問·靈蘭秘典論》<sup>24)</sup>의 “心者 君主之管, 神明出焉”이나 《靈樞·邪客篇》<sup>24), 25)</sup>의 “心者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也”등은 사람의 精神이나 思惟意識活動이 모두 心에 의해 支配를 받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靈樞·口問篇》<sup>25)</sup>에 “故悲哀憂愁則心動, 心動則五臟六腑皆搖”라 하여 七情에 대한 心의 主導的인 작용을 強調하고 있



다. 心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는 “喜” “憂”, “思”가 관계되어 있는데 喜는 氣緩하거나 喜傷心하여 “神憚散而不藏”하기 때문에 “喜則氣下”하게도 되어 腎水가 心火를 制御하지 못하게 된다. 憂·思와 勞倦은 心·脾를 손상시키는데 心이 손상되면 陰血이 耗損되어 神不寧靜하고, 脾가 손상되면 精微를 化生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血이 虛해지면 火를 받들지 못함으로써 心悸·健忘·失眠 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sup>2)</sup> 또한 痰이 心竅를 막아버린 경우에는 膽妄·昏迷·人事不省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痰熱이 心을 어지럽힐 경우에는 喜笑不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즉 喜·憂·思가 過度하면 「心氣虛」, 「心血虛」 등의 虛證과 「心火上炎」, 「痰迷心竅」, 「痰火擾心」 등의 實證의 病理的 상태가 초래됨을 알 수 있다.

脾의 重要機能은 食物의 精氣를 轉化하여 이를 全身各處에 運반하는 것이다.<sup>2)</sup> 脾의 生理機能은 대개 脾主運化·脾統血·脾主肌肉 등으로 要約된다. 脾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는 “憂思傷脾”, “怒傷肝” “肝木克脾土”<sup>25)</sup>라 하여 思·憂·怒가 脾胃致病의 중요한 素因임을 알 수 있다.

思는 脾의 志이므로 張景岳은 “苦思難釋則傷脾”라 하여 思와 脾가 有關함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脾가 思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으면 生化의 源泉이 부족하게 되어 心脾臟에 영향을 줌으로서 心脾兩虛證이 나타나게 된다.<sup>22)</sup> 또한 怒는 본래 肝의 志이지만 肝과 脾는 木克土의 制約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怒한 즉 肝木이 盛해져서 脾土를 克함에 따라 肝氣犯胃證이나 肝脾不和證

情動 Stressor(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이 생기게 된다.<sup>8)</sup> 日常生活이나 臨床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脾胃의 運化機能과 受納機能에까지 미침으로써 그러한 機能들이 障礙를 받고 심지어는 倦怠·納呆·消瘦 등의 症狀을 나타내는데 이는 憂慮라고 하는 刺戟이 大腦皮質의 活動力을 減弱乃至는 抑制시킴으로써 自律神經의 平衡이 失調되며 그에 따라 胃腸管의 운동이 弱해지고 胃液分泌도 減少되어서 胃內容物이 停滯되고 食欲이 不振하며 上腹部가 痞悶해지는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思慮된다. 즉, 憂思傷脾는 脾胃虛弱을 초래하고 「脾失健運」, 「脾不統血」, 「脾氣下陷」, 「心脾兩虛」 등의 病理的 현상과 怒의 情緒는 肝氣乘脾하여 「肝脾不和」, 「肝氣犯胃」 등의 病理的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臟腑學說로 본 肺의 機能은 呼吸機能 뿐만 아니라 水液의 調節과 氣血의 運行 및 皮膚衛表의 防禦機能과도 有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肺의 機能이 失調되었을 경우에는 呼吸系統의 病變과 水液代謝의 障礙, 그리고 血液循環의 障礙와 外感表證 및 여러 種類의 皮膚疾患이 發生하게 된다.<sup>2)</sup> 肺의 病變을 일으키는 情緒的 要因으로써 “悲”로 말미암아 肺가 손상을 받으면 情志가 鬱結되고 五臟이 調和를 상실하여 邪火가 肺로 上逆한다. 또한 “憂”와 “思”로 말미암아 心脾가 손상을 받으면 이것이 오래되면 氣血이 부족해지고 正氣가 衰弱해 짐에 따라 邪氣의 침입을 잘 받게 되어서 肺가 손상을 입기도 한다.<sup>2)</sup>

이리하여 肺司呼吸, 肺主一身之氣의 生理的

機能에 병리적 변화를 초래하여 眞氣의 生成에 영향을 미치고, 氣機不利의 諸症을 形成하며 宣發·肅降機能의 失調를 초래하여 水液이 정상적인 經路를 따라서 運行하지 못하고 津液이 失節하며, 水液이 內聚하여 痰飲을 이루게 이므로 인하여 短氣·咳逆喘息 不得臥 등의 症狀이 나타나게도 된다고 볼 수 있다.

腎의 重要한 기능은 精을 藏하고 水液과 骨을 주관하며, 髓를 生하고 耳로 開竅하고 前陰과 後陰을 다스리며 腎의 機能이 異常해지면 生殖과 發育方面에 病態가 나타나고 水液代謝가 障礙되며 主骨生髓方面이 失調되면 이로 말미암아 허리가 나른해진다. 腎病의 原因이 되는 七情要素는 “恐”, “驚” “怒” 등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素問·陰陽應象大論><sup>25)</sup>에 이르기를 “在臟爲腎…… 在志爲恐 恐傷腎……”이라고 한 것처럼 恐傷腎의 결과 精氣가 內損된다. 또한 精血이 不足해도 무서움을 잘 타게 되는 까닭에 “腎氣不足則善怒 血不足則恐”<sup>24)</sup>이라 하였다. 또한 놀라게 되면 (“驚”) 心神이 不安定해지고 心氣가 紊亂해져서 陰勝陽虛한 症狀이 나타나고 腎이 風邪를 받은 후에는 水邪가 凌心함으로써 驚症이 발생하게도 되는데 이렇게 하여 心氣가 虛해졌을 때에는 心과 腎에 모두 病이 들게 된다.<sup>2, 7, 22)</sup> <靈樞·本神篇><sup>25)</sup>에 “腎盛怒而不止則傷志 志傷則喜忘其前言……”이라 하여 氣血이 旺盛한 사람이 怒火를 暴發시킬 경우에는 그 勢力이 肝의 母格이 되는 腎을 乘함으로써 腎病을 일으킨다는 것을 說明하여 怒의 情緒가 腎에 病變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V. 結 論

情動Stressor (七情)가 五臟機能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考察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七情의 偏勝은 Stressor로 作用하여 氣의 循環障礙를 초래하며 五臟의 虛實, 血虛, 精損, 痰飲등의 病理的 結果를 가져온다.
2. 肝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는 “怒”를 爲主로 하여 “恐”, “驚”이 相生相極 關係에 의하여 肝의 疏泄·升發機能에 病理的 變化를 초래한다.
3. 心의 病變을 일으키는 七情要素는 “喜”를 爲主로 하여 “憂”, “思”등이 心主血脈의 機能에 病理的 結果를 초래, 虛症을, 痰·火의 病理的 變化가 精神機能에 영향을 미친다.
4. “思”, “憂”, “怒”가 脾의 致病에 重要한 素因이 되어 運化·受納機能에 영향을 미쳐 脾의 虛弱을 초래한다.
5. 肺에는 “悲”, “憂”, “思”의 情動이 氣機不利의 諸症을 形成하거나 宣發肅降機能의 失調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6. 腎에는 “恐”, “驚”, “怒”의 情動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精氣의 損傷과 心氣의 紊亂을 초래함을 인식 할 수 있다.

이상에서 七情의 偏傾이나 過極은 한 臟器 뿐만 아니라 五行關係에 의해서 다른 臟器에도 病理的 結果를 惹起하며, 또한 靈敏한 神의 作用도 五臟의 원활한 활동과 相互 協助로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神形一體

라 하여 精神과 肉體를 분리하지 않고 그 성립부터 心身一如의 概念을 포함하여 全體醫學의 原理를 堅持해온 東洋醫學 特有的 疾病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參 考 文 獻

1. 金相孝; 東醫神經精神科學, 서울, 杏林出版社, p.62, pp.259~264, 1980.
2. 金完熙外; 臟腑辨證論治, 서울, 成輔社, p.45, pp.141~142, 146~147, 174~175, 215, 255, 248, 281~285, 291, 1985.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판부(정도인); 행동과학, 서울, 서울대학교, p.157, 1986.
4. 安秉國; 內科總論,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pp.87~90, 1983.
5.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研究, 서울, 成輔社, p.112, 322, 1983.
6. 李根厚外; 최신임상정신의학, 서울, 하나의학사, p.496, pp.499~501, 1980.
7. 鄭遇悅; 漢方病理學, 圓光大學校韓醫科大學 病理學教室, 이리, p.122, 153, 179~180, 207, 238, 1984.
8. 黃義完; 心身症, 서울, 杏林出版社, p.28, 34, pp.37~40, 36, 1984.
9. 黃義完·金知赫; 東醫精神醫學, 서울, 현대의학서적사, pp.103~107, p.626, 1987.
10. 金基玉; 祛痰清心湯의 抗 Stress 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6.
11. 金基永; 情志의 生理病理的 考察, 이리, 원광대학교 출판국, 圓光韓醫大 論文集 II, pp.119~122, 1984.
12. 金斗煥; 歸脾溫胆湯의 抗 Stress 效果에 關한 實驗的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13. 金永洙; 補血安神湯의 抗 Stress 효과에 關한 실험적 연구,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14. 金知赫; 天王補心丹 加減方의 抗 Stress 효과에 關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15. 文 九; 柴胡疏肝散이 胃腸管運動과 Stress에 미치는 영향, 이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88.
16. 文梳模; Stress에 關한 東西醫學的 考察, 大田大學 論文集 VI, 2:301~305, 1987.
17. 文梳模; 歸脾湯의 抗 Stress 효과에 關한 실험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18. 宋古植·申玟圭; Stressor에 따른 身體生理反應에 對한 東醫學的 考察, 서울, 대한한의학회지, 제 18권 2호, pp.103~104, 1987.
19. 楊秉煥; Stress와 정신신경내분비학 서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 연

- 구소, Vol III, pp.81~89,  
1985.
20. 장창규; 祛痰清心湯의 Stress 抑制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6.
21. 盛增秀·王琦; 脏象概說, 上海, 上海科  
學技術出版社, pp.101~102,  
108~109, 115~117, 123~  
125, 133~134, 1980.
22. 宋鸞冰; 中醫病因病抗學, 北京, 人民衛  
生出版社, p.104, 107,  
pp.274~277, 1987.
23. 李 挺;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354, 1977.
24. 梁運通;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  
人民出版社, p.151, pp.178~  
182, p.278, 1986.
25.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  
衛生出版社, pp.18~20, 22,  
p.29, 36, 50, 59, 68, 113,  
291~292, 349, 396, 438,  
1986.
26.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書苑堂,  
pp.748~749, 251, 1977.
27. 張 機; 金匱要略(醫部全書 第五冊),  
p.3753, 金泳出版社, 1979.
28. 陳無擇; 三因方, 서울, 翰成社, p.9,  
1977.
29. 皇甫謐; 鍼灸甲乙經校釋 II, 北京, 人民  
衛生出版社, p.287, 1979.
30. 田多井吉之介; 神版ストレス, 創元社,  
大板, 2nd Ed, pp.51~  
62, p.120, 188, 8, 1983.
31. 下田新一; 環境と順應, 廣川書店, 1978.
32. Cooper, Cary C; Stress  
research, N.Y. John  
Wiley & Sones, 1984.
33. Selye, H; Stress, canada  
montreal, Aeta Inc.  
p.2, 9~13, 1950.
34. Wolman B; Int Encyclop,  
psychiatry, psycho-  
logy psgchandysis &  
neurology 10, Van no-  
strand Reinhold  
pp.464~473, 1977.
35. 裴永勳; 各種 Stress와 뇌하수체 항  
부신피질 및 부신피질 Horm-  
on 주사시의 신경세포의 병리  
조직학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  
학원, 1979.